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경  
이야기

글쓴이 김순희 조은옥  
그림 이리브가 전예나



# 추천서

할렐루야!

신약 이야기를 동화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는 주일학교를 위한 교재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구입해서 활용하는 교재로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붙들고 살아갈만한 예화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교사들이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말씀과 연결되는 예화로 잘 풀어내지 못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순희집사님의 '하늘나라 이야기' 책이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책의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진지한 천국 간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새로운 천국 간증을 들으면서 예배에 집중을 잘 할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교사들이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신약편을 출간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약 이야기가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 필리핀 레가스피 한영희 선교사 -

## 동화가 만들어지기 까지

발행일 2018년 12월 18일

발행인: 이동재

글: 조은옥 김순희

편집: 조은옥

그림: 이리브가 전예나

율동: 강지인

노래: 한다영

가면극 제작: 고종옥 이준인 나은영

2부 게임: 정은숙

번역: 이해니 조하은 임가을



# 이야기 목차

1. 예수님의 탄생 -1
2. 별을 따라 갔더니 -9
3.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17
4.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 -25
5.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 -33
6. 예수님의 첫번째 기적 -41
7. 예수님 무서워요, 폭풍우예요 -49
8. 아버지, 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57
9.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65
10. 어린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73
11.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81
12. 소녀야 일어나라 -89



# 1.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2:1-7)

갈릴리 마을에 예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멋진 청년 요셉과 미래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약혼한 상태였어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날,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자 두려웠어요.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천사예요.”

“천사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리아, 당신은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아이  
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네에?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도록 해요.”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로 달려갔어요.

“요셉! 요~셉!!!”

“마리아! 천천히 와. 넘어져요.”

“요셉, 천사가… 헉 헉 아휴 숨차. 휴우~~ 나 어떡해요? 천사가 와서 말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요.”

“정말? 마리아! 그럼 어떡하죠? 이런 큰일이 왜 우리에게……. 아! 너무 두렵고 떨려요.”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댈 것 같았어요.  
그때 요셉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 사랑하는 요셉! 내 말을 잘 들어요.”

“아, 네. 천사님!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그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 라고 하세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네네, 천사님.”





“이 모든 일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놀라서 꿈에서 깬어요.  
주님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한 후 더욱더 아내를 잘 돌보아주었어요.

어느 날, 유대인들의 인구 조사가 있었어요. 요셉은 다윗의 집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임신한 아내 마리아도 데리고 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아기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 당신 배가 많이 불러서 힘들죠? 내가 쉴 곳을 찾아볼 테니  
잠깐만 기다려요.”

한참 만에 돌아온 요셉이 기운 없이 말했어요.

“마리아, 미안해요. 이곳 여관에는 사람들이 다 차서 들어갈 방이 없어요.”  
“요셉!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아~~배가 아파요.  
아가가 나오려나 봐요.”

“마리아, 저기 마구간이 비어 있네요. 그곳으로라도 갑시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어요.  
드디어 예쁘고 멋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내가 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궁금하지 않니?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야.

내가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내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나쁜 죄들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할 죄들을 대신 지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차가운 마구간에서 낮은 자로 태어난 거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 너희도 항상 낮은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라.’

는 나의 계명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의 생일을. ♪♪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제일 예쁜 옷 입고 찬양하고 드라마도 준비했어요.

아주 신나요. 잠잘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도 안 졸려요.

예수님!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2. 별을 따라 갔더니

(마태복음 2:1-12)

헤롯왕 때에 유대 베들레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때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인데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온 예루살렘에 동방박사의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예루살렘이 시끌벅적 난리가 났어요. 헤롯왕도 그 말을 들었어요.

헤롯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중요한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후 물어보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느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쓴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지도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는 동방박사들을 아무도 모르게 불러서 자세히 캐물었어요.

“별이 언제 나타났소?”

“별이 나타난 것을 보자마자 출발했어요. 동방으로부터 와서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그렇소? 그럼 그곳이 어디요?”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가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돌아가는 길에 내게 와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아기 탄생을 축하하리다.”

헤롯왕이 거짓말하는 줄도 모른 채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났어요. 동방에서 본 그 별이 하늘에 다시 나타났어요.

“우와! 저 **별** 좀 봐. 우리가 보고 따라온 그 별이야. 우리 길을 안내하고 있어.”

“맞아, 그 별이야. 다시 나타났네. 저 별만 따라가면 되겠는 걸.”

“아! 이제 별이 멈췄네. 이곳에 태어난 아기가 있나봐.”

“와! 이곳이구나. 이곳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계신 거야.”

그들은 별이 멈추어 선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아기 예수가 계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낯선 손님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큰 별이 우리를 이곳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께 절했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담은 상자를 열어 드렸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오니 받아주세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는 길에 헤롯왕을 만나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거라.  
그는 아기 예수를 해치려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을 이용해서 자기들 나라에 돌아갔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6)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나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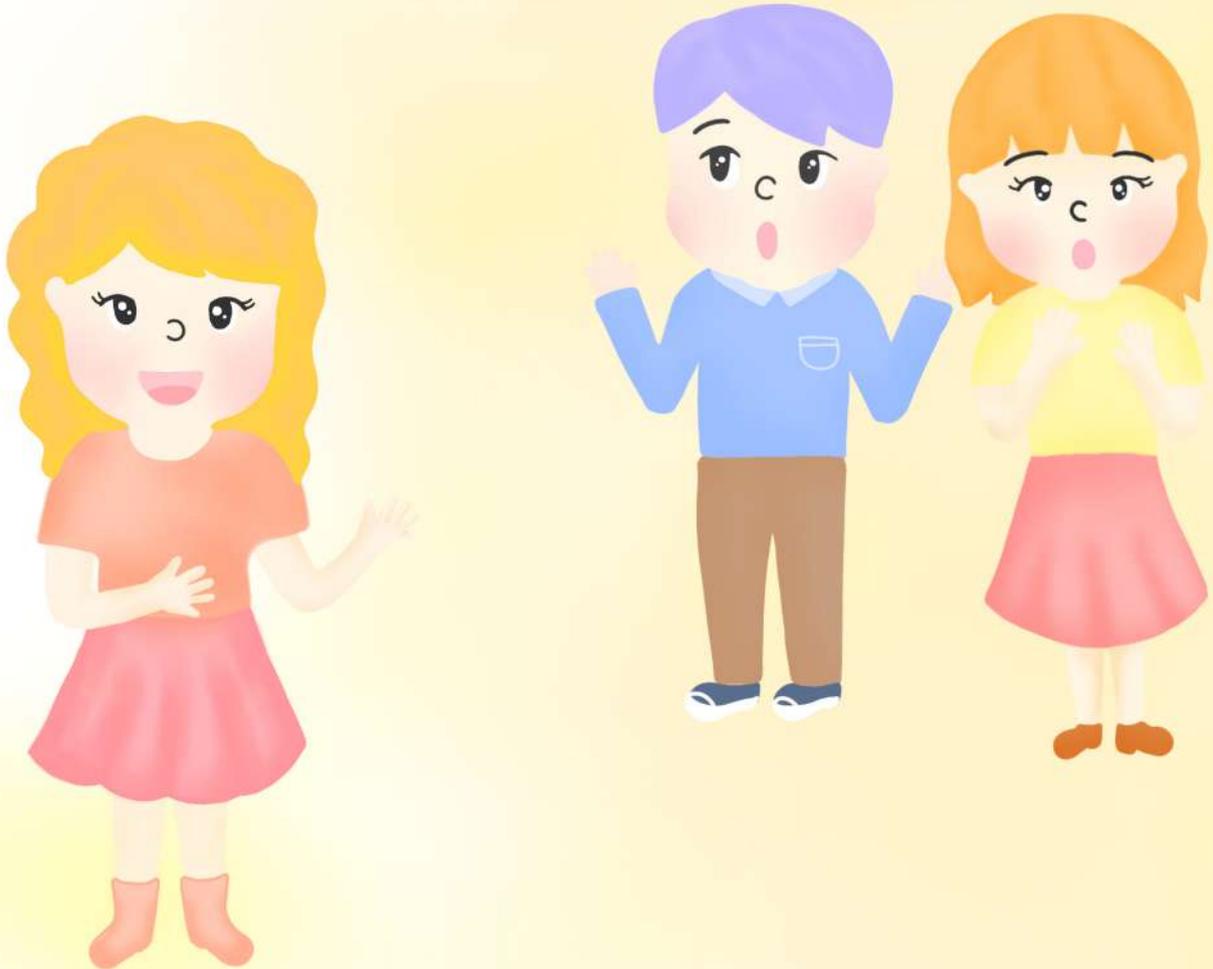
친구가 전도를 해서 네가 나를 만났다면 그 친구는 너에게 동방박사가 되어준 거야.

나를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너희도 그들의 동방박사가 되어주고 싶지 않니?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별을 따라갔던 박사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선물하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사랑해,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도 동방박사가 될래요.  
그러면 나는 네 번째 동방박사인가요? ㅎㅎ  
오늘 일기장에는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먼저 적어볼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할게요.  
그들에게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고 싶어요.  
자, 별을 따라 출~ 발~!  
아참,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3.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1-17, 마가복음 1:1-11, 누가복음 3:1-22, 요한복음 1:19-28)

유대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매고 있었어요.

그의 식사 메뉴는 메뚜기와 돌에 붙어있는 석청이라는 꿀이에요.

모든 것이 이상하기만 한 그를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앞에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말하며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크게 외치며 다녔어요.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 앞에 엎드리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 강으로 오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어요.

**“요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요한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말리며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 네, 예수님. 그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는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어요.

요단 강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것 좀 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에게 머물고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내가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어요.



#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 이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6-17)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너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할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어보았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삼위일체야.

내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나타났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들인 나 예수, 성령님, 삼위일체가 모두 한 곳에 계신 장면이야. 신기하지?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모두에게 들려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아휴 예수님! 정말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구구단 외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를 알면 되나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회개한 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4.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

(마태복음 4:1-11, 마가복음 1:12-13, 누가복음 4:1-13)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 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이봐, 예수! 너 지금 배가 고파 죽겠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딱덩이가 되게 해.”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였어.”**

마귀는 할 말이 없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 안 통하네. 40일을 굶은 후라 엄청 배고플 텐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지? …… 좋아. 말씀으로 내 첫 번째 시험을 이겼으니 나도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해보자. 이번엔 넘어갈 것이다. 흐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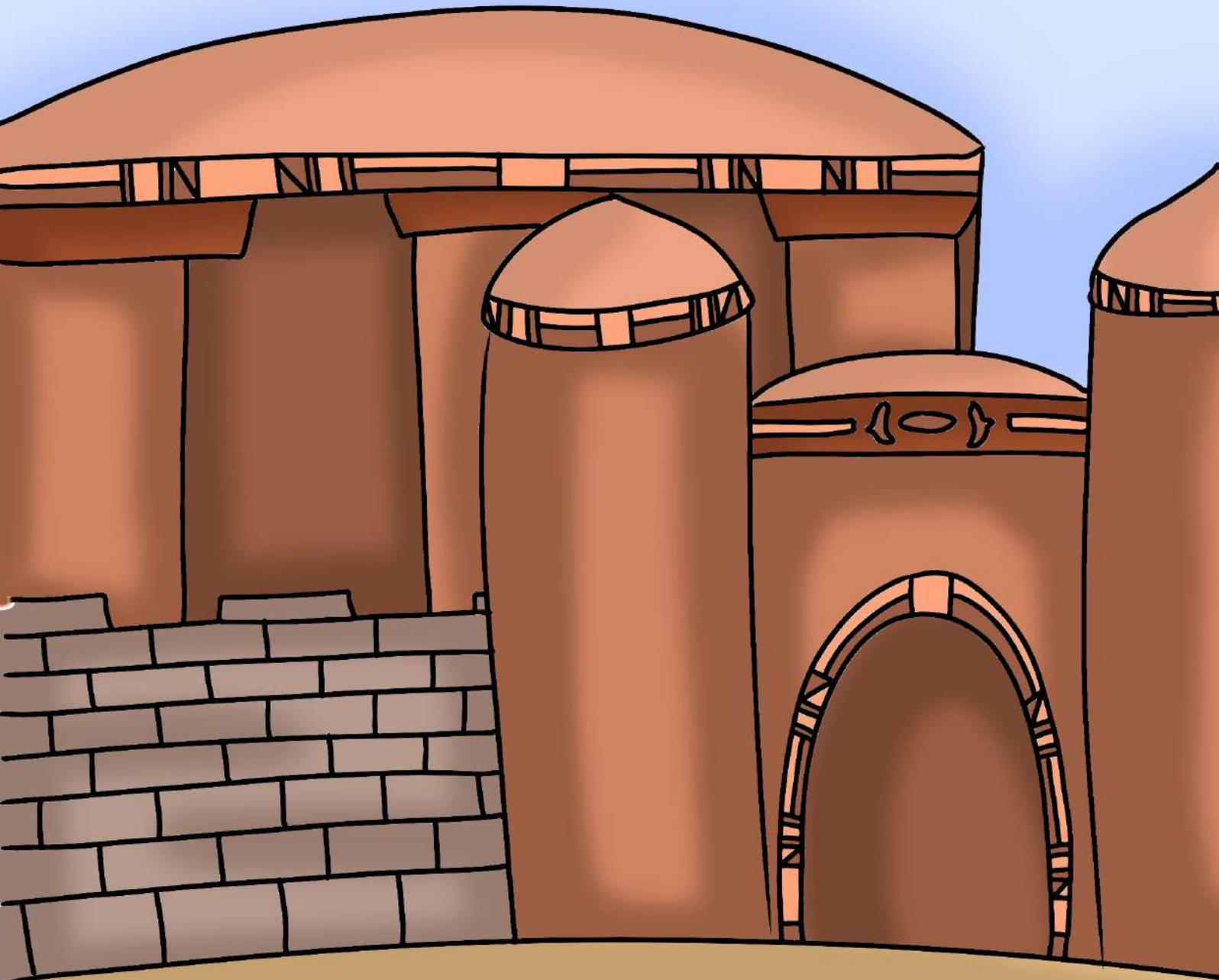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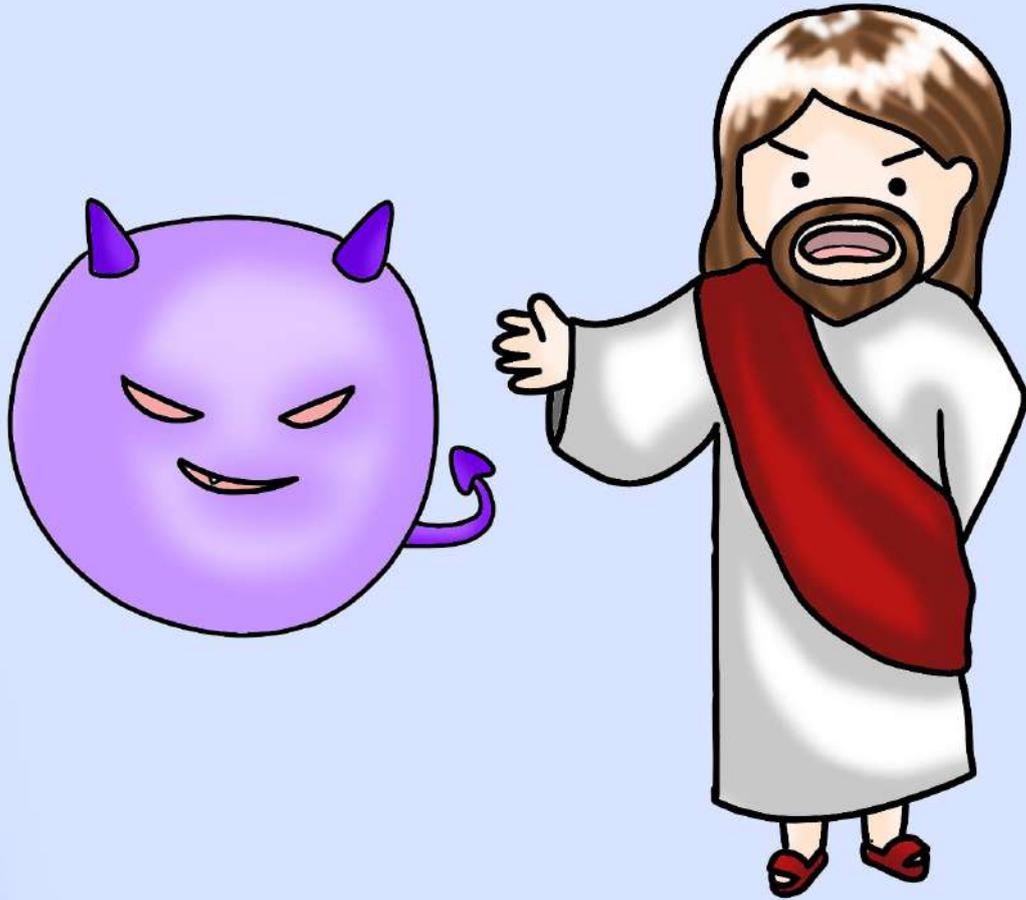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말씀으로 시험하면 꼼짝 못 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 대략 난감이네. 어찌지? 뛰어내렸으면 유대 군중들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 텐데안 넘어가네. 말씀에 말씀으로 대항해서 나를 이겼어. 자! 빨리 머리를 굴려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 시험에서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마귀는 더 큰 시험을 준비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산으로 갔어요.

“자, 보아라. 천하만국이 다 보이지? 그곳의 영광도 보아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네가 뭘데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감히 내게 준다는 것이냐?”

“이것은 다 내게 넘겨진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지.”

마귀는 이어 말했어요.

“이봐, 예수!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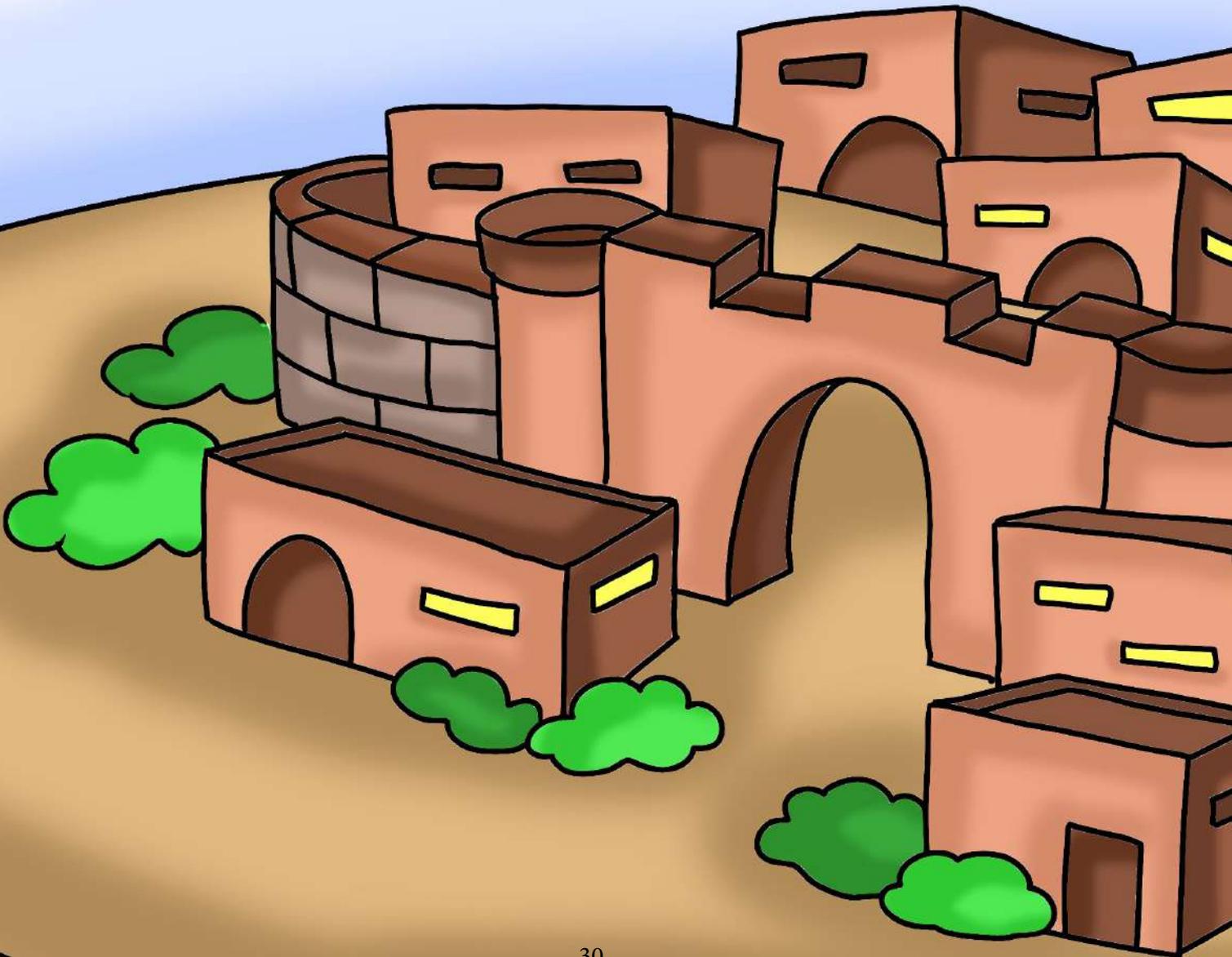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어. 썩 물러가!”**

이에 마귀는 아무 소리 못하고 꿈무늬가 빠져라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나아와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7)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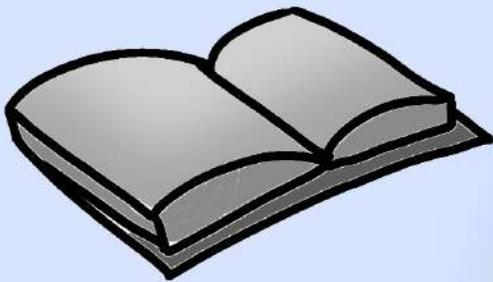
마귀가 나를 시험하며 이길 줄 알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어?

코가 빠져서 물러갔지만 아주 물러간 것은 아니고 얼마동안만 후퇴한 거야. 시시때때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왔어.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너희를 더 유혹하고 공격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를 가장 무서워해서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야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를 믿고 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아무 걱정 없어. 튼튼한 벽이 너희와 마귀 사이에 쌓여져서 절대 넘보지 못하거든.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차라리 마귀가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빨 달리고 눈 찢어지고 사납게 생긴 괴물처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엔 친한 짝꿍이 마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마귀일 수도 있고  
내가 마귀일 수도 있고.

에휴! 자신이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 말씀을 놓지 않고 가까이 하면 마귀가 내게 다가오지 못  
한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게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5.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

(마태복음 4:18-22, 마가복음 1:16-20, 누가복음 5:1-11)

베드로는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어느 날,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물고기야~ 오늘 내 그물에 가득 가득 잡혀라!”

“물고기들아~~ 모두 어디 갔니? 내 그물 안으로 놀러오렴!”

“아~ 날이 밝아오네. 물고기는 잡지도 못하고 빈 배로 돌아가야 하다니.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하나? 휴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는 지치고 힘들어서 육지에 배를 대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여라.”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어느 곳에서 고기가 잡힐 것인지 눈감고도 알 수 있는 어부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잠 한 숨 못자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

“네, 예수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깊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잠시 후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나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베드로의 힘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우와, 세상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

베드로는 다른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어이 친구들~ 나 좀 도와줘.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 어서 와서 고기들이 도망 못 가게 해 줘.”

“알겠어. 근데 무슨 일이래? 우린 고기가 안 잡혔는데.”

친구들이 와서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두 배에 담았는데 가득 채우고도 넘쳤어요.

“하하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배들이 모두 가라앉을 것만 같아!”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곱과 요한도 놀랐어요.

베드로는 너무 놀랍기도 했지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베드로,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를 떠나주세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누가복음 5:10-11)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야. 어부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고기잡이였기 때문이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만났고 내 제자가 되었지.

너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해. 그리고 나의 말을 따라야 해.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와 얘기도 할 수 있어. 음~ 내가 행하는 기적도 만날 수 있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

순종이 뭐예요? 뜻을 찾아보았더니 ‘순순히 따름’ 이래요.

아하! 엄마가 뭐 하자고 할 때 “네, 엄마.” 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나는 “싫어, 안 해.” 라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싫어요.’ 라고 할 때보다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할 때 기분은 더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6.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 2:1-11)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나라는 곳에 가셨어요.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으며 결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때 잔치 책임자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포도주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잔치 책임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예절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현관 입구에 커다란 돌 항아리를 놓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채워놓아요. 그 집에도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너무 이상해서 수군거렸어요.

“니네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이상하지?”

“그래 맞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난데없이 손발 씻을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지?”



“야야,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응응. 별 수 있어? 시키는 대로 하자.”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제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거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잔치 책임자는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 크게 칭찬했어요.

아니, 신랑님!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두셨어요?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맛이 덜한 것을 내놓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하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도 분명히 봤지? 봤지? 우리가 떠다 준 것은 물이었잖아.”

“우와~~. 대~박~. 우리가 갖다 주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야?”

“그래.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었어.”



“와! 예수님 말대로 하길 정말 잘했다.”

“내가 심부름을 해놓고도 믿을 수 없어. 지금 실제 상황이지?”

“그럼 그럼. 난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예수님은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포도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온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11)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애들아,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적을 많이 만들었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은 결혼식 잔치였어.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야.  
결혼식 잔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잖아.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만들었던 거야.

나는 더 큰 기적을 너희에게 주었어. 그건 바로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란다. 그러니까 나를 잘 믿고 너희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줘.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적이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큰 행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7. 예수님, 무서워요. 폭풍우예요

(마태복음 8:23-27, 마가복음 4:35-41, 누가복음 8:22-25)

사람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은 마치셨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서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얘들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잔잔한 바다 덕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갑자기 바다가 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큰 폭풍이 바다에 미친 듯이 몰아쳤어요. 물결이 높이 솟아올라 배를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배 안이 물로 가득 찼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허둥댔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어요.

“악! 배 안에 물이 점점 차고 있어.”

“배가 부서질 것 같아!”

“이러다가 우리 모두 빠져 죽겠어!”

“예수님! 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배가 침몰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다급하게 부르짖었어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깨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성난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너 바람아, 멈추어라!”

“너 파도야, 잔잔하라!”



순간 미친 듯이 불어대던 폭풍이 멈췄어요.  
배 안으로 들이치던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뒤집힐 것 같던 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꺾꺾”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이 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

“아니, 바람과 물을 보고 명령하시잖아.”

“맞아. 어떠한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걸까?”

“참 대단하지지? 말씀으로 성난 파도와 폭풍을 굴복시키셨어.”

“아! 우리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

“맞아 맞아. 그러니 우리보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지.”

“으이그.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누가복음 8:24)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얘들아, 뒤집힐 것 같은 배 위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나에게 달려왔어.  
자고 있는 나를 깨우며 도와달라고 했어. 나와 함께 있으면 겁날 게 없어야하는데  
그들은 죽을까봐 덜덜 떨었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알면서도 즉시 도와주었지.

너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일이 많을 거야.  
나에게 빨리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나를 깨워.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있어야 해.  
매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나와 함께 있자~. 알았지?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오늘 동화책을 읽었어요. 해님과 달님이 된 오누이 이야기였어요.

호랑이한테 쫓기던 오빠와 여동생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쫓아오던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구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살려줄 동아줄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죽이는 동아줄은 게임하고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구요.

예수님!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마귀들에게 썩은 동아줄 내려주실 거죠? ㅎㅎ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8.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누가복음 15:11-32)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잘 도와주고 성실했고 작은 아들은 놀기를 좋아했어요.

“아버지! 동생 좀 혼내주세요. 일은 안 하고 나무그늘에서 낮잠만 자요.”

“아버지 아버지!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어요. 아버지한테는 일한다고 하고 친구네 집에 놀러갔어요. 봐요, 아직도 안 왔어요.”

놀이 좋아하는 동생은 형의 말도,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쫘쫘, 이 철부지 녀석아. 도대체 그 재산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

“아버지~~. 빨리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고민을 하던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집을 떠났어요.

주머니가 두둑한 작은 아들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모두 해보며 여러 나라를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우와! 집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신나는 걸. 푸하하하.”

“룰루랄라 야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아니! 돈을 다 써버렸네. 언제 이렇게 다 썼지? 어떡하지? 나는 돈을 벌 줄도 모르고 일 할 줄도 모르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형에게 일이라도 배울 걸…….”

“아~~ 돈도 없는데 이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인색해졌어.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지?”

배가 너무 고폰 작은 아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을 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제발 밥 좀 주세요.”

“이봐! 밥을 줄 테니 들에 나가 돼지를 돌보도록 해.”

돼지를 치던 작은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아! 배 고파. 이놈의 돼지들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돼지들아! 니네는 좋겠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 돼지먹이인 쥐엄 열매라도 얻어먹어야겠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신체가 왜 이래? 흑흑…… 맞아!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집의 종들은 밥을 실컷 먹었어. 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을 맘껏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무슨 염치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가서 나를 종으로 써 달라고 해야겠다.”



힘없이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대문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왔어요.  
거지꼴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아들인줄 아버지는 아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며 소리 내어 우셨어요.

“아들아, 흑흑……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매일 해질 때면 네가 돌아올까 싶어 대문 앞에 나와 기다렸다. 이게 꿈은 아니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리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영영!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종으로 써 주시고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중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해야겠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흐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또 울었어요.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살아 돌아온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31-32)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아. 너희가 하나님과 떨어진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리듯 하나님도 너희가 하루 빨리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셔.

혹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자.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니까.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아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나는요. 아빠보단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나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아빠는 저녁때 잠깐 만나거든요. 근데요. 아빠가 바쁜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거래요. 아빠도 회사 가는 것보다 나랑 노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똑같이 큰 사랑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랑 예수님의 사랑이랑 똑같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한 분이시니까 당연한 거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9.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누가복음 19: 1-10)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틈으로 들어갔어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볼래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아무리 발돋움을 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어 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금을 걷는 세관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어요.

“저리 비켜. 너 같은 죄인은 예수님 볼 자격 없어.”

삭개오는 한숨을 쉬며 사람들에게서 빠져 나왔어요.

‘아! 오늘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뒤에선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 그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휴’

그는 그대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때 삭개오의 눈에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렇지! 저 나무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예수님이 저 나무 옆으로 지나가실 거야.”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와! 예수님이 보인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거기에서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꼭 볼 거예요. 거기 내려가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 못 봐요.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비켜주지도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요. 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나무 밑을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가득 차 있네. 이럴 수가…….’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심장이 쿵쿵쿵쿵 뛰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어.”**

“예수님!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신다구요?  
사람들은 저를 다 싫어해요. 지금도 저렇게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정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여주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구름에 두둥실 떠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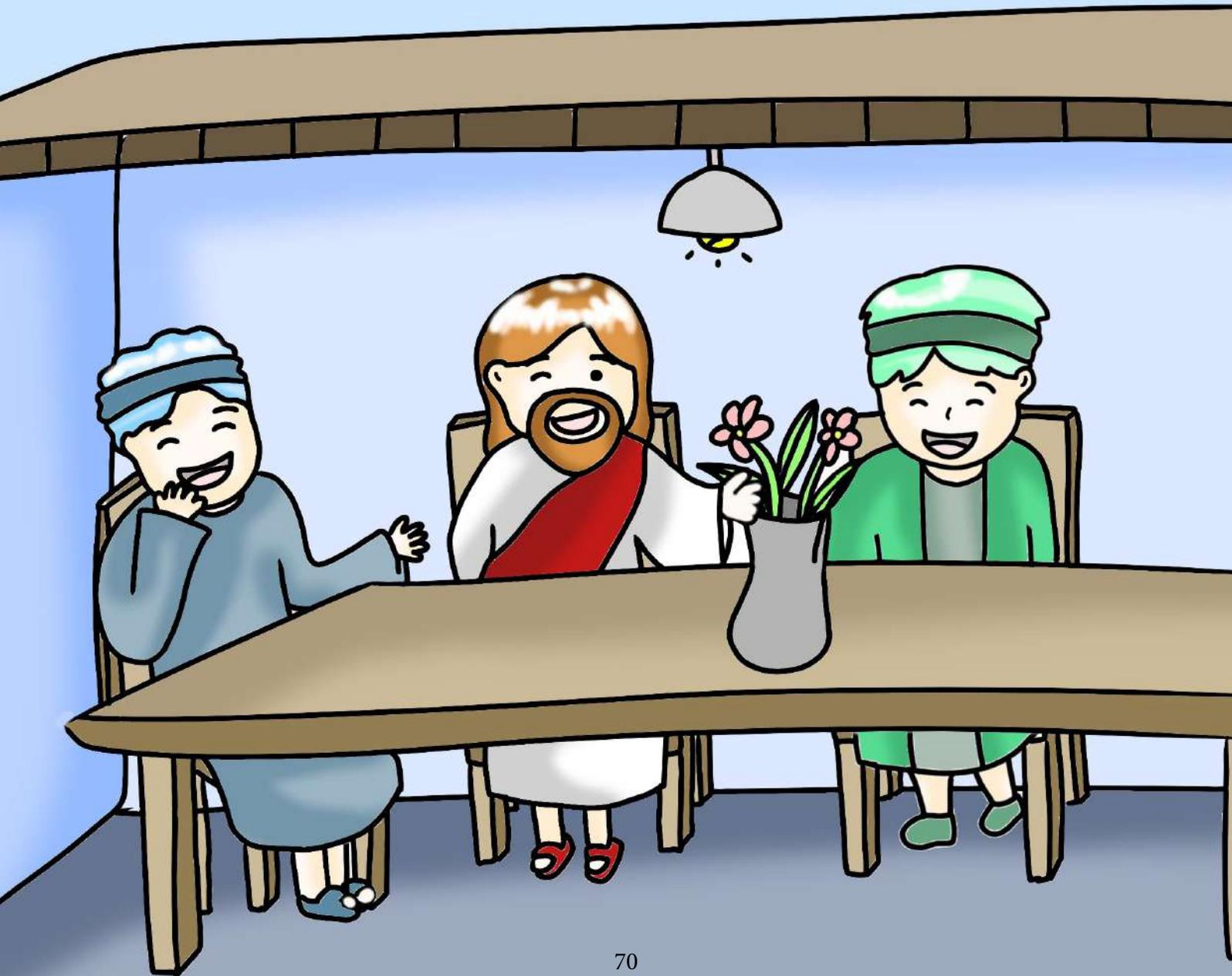
그는 재빠르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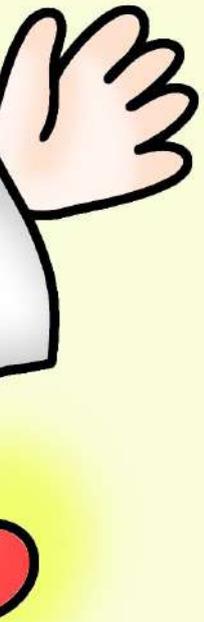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9-10)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단다. 나를 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진심이 그 나무 밑을 지날 때 느껴졌어. 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했는지 아마 하트가 뱅뱅뱅 백 개는 나온 것 같아. 하하하.

너희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거야.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가는 거 알지?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삭개오 아저씨처럼 키가 작아서 맨날 뒤를 보려면 까치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친구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삭개오 아저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요, 예배드리러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뒤에 앉으면 혹시 예수님이 키 큰 친구들 사이에 폭 들어가 버린 나를 못 보시면 어떡해요. ㅎㅎ

“예수님, 사랑해요.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0. 어린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마태복음 19:13-15, 마가복음 10:13-16, 누가복음 18:15-17)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아이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얘들아, 어디를 가려고 그래? 여긴 너희 같은 어린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어서 가!”

“베드로 아저씨!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

“어허! 조용히 못해?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빨리 부모님께 가거라.”

“아저씨~~ 제발요. 조용히 할게요. 예수님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내쫓았어요.

“어떡하지? 예수님 만나야하는데 .....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자.”

아이들이 포기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거라.”**

그 말씀에 아이들의 발걸음이 딱 멈춰졌어요.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애들아, 이리 오렴.”**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뚫고 쏙살같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아가들아, 다치겠구나. 천천히 천천히.”

“예수님! 예수님! 헉헉…….”

“아이들이 올 수 있게 길을 비켜주어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주시기도 하시고 가까이 앉게도 하셨어요.

아이들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앉아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같은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암~그렇고말고. 천국은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란다.”

“와! 신난다. 우리 같은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무 기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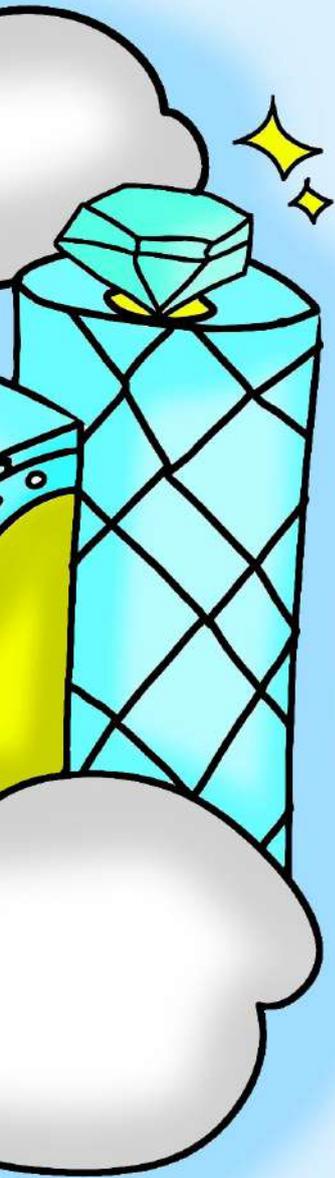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기뻐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저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15-16)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나는 너희가 너무 좋아. 착하고 순수하고 예쁜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희를 보고 있으면 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너희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데 어른들은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주위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거든.

너희 모습 속에 천국이 보일 수 있도록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 예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엄청 신나요. 예수님이 나 같은 어린이 편이어서요.

천국을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말씀해주셔서 행복해요. 항상 내 모습 속에 천국의 모습이 있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 같은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단다.” 라고 칭찬 받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1.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1-44)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혈레벌떡 뛰어 들어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베다니에서 왔는데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전해달라고 저를 보냈어요.”

“가서 전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야.”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도착해보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갔어요.

“예수님! 흑흑…….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무어라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을 믿어요.”

“마르다야!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오빠가 살아나겠죠.”



**“사랑하는 마르다! 내 말을 잘 들으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믿니?”**

“네 네. 그럼요.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래. 마르다야! 참 잘하였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 가서 내가 찾는다  
고 하여라.”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찾으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흑흑.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빠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흑흑.”

“마리아야. 똑. 이제 그만 울어. 오빠는 어디에 묻었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도 울고 마리아를 따라온 동네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마르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새 잊어버렸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과 함께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무덤 안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리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몸을 싼 수건과 베를 다 풀어 주어 마음대로 다니게 하라.”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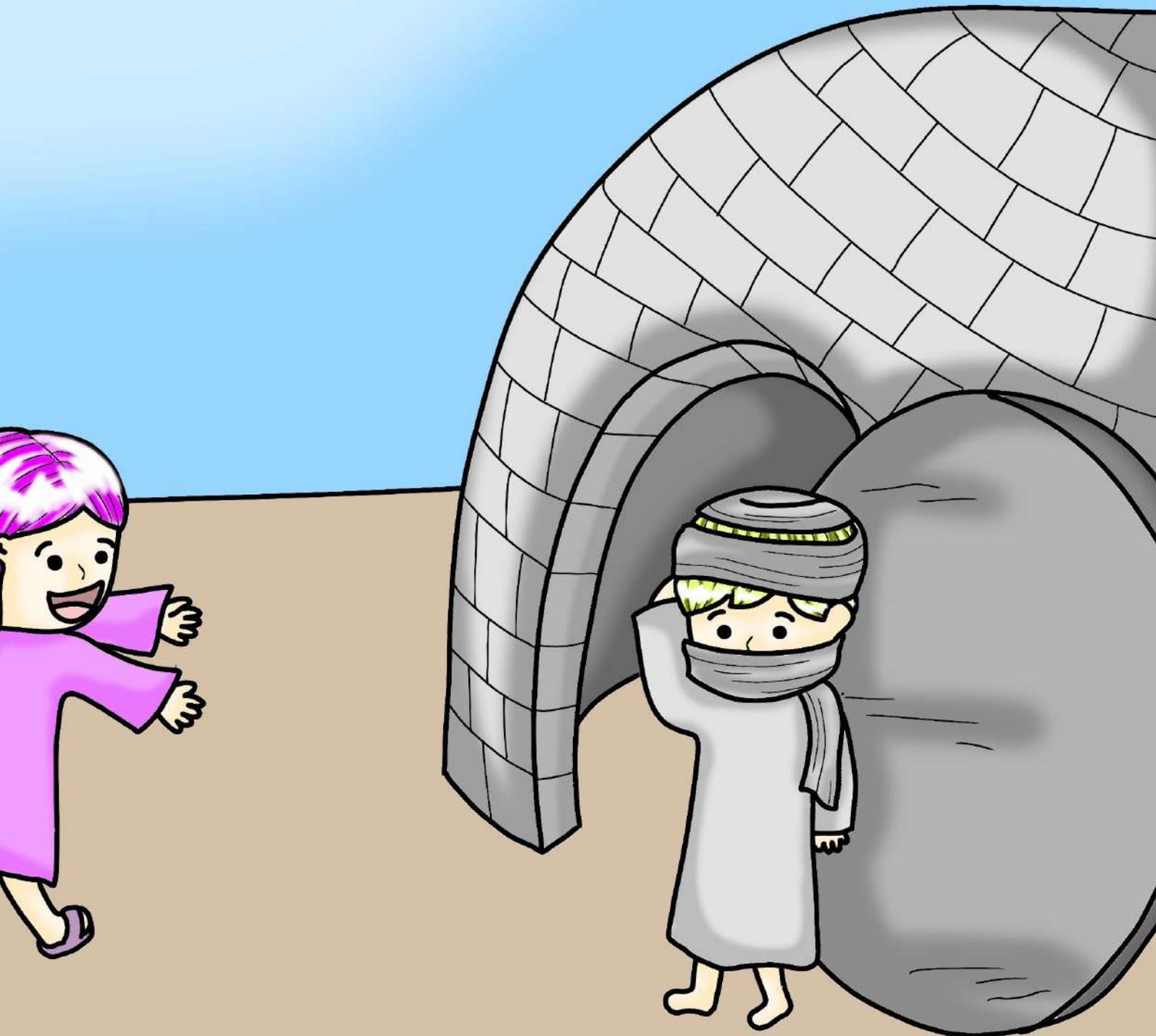
“할렐루야, 예수님. 죽은 오빠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많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믿니?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들도 고쳐주었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너희는 오직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면 돼.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목소리를 기대하며 기도할래요.  
저의 기도에 대답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래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 12. 소녀야, 일어나라!

(마태복음 9:18-26, 마가복음 5:35-43, 누가복음 8:40-56)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계시다가 배를 타시고 건너오셨어요.  
바닷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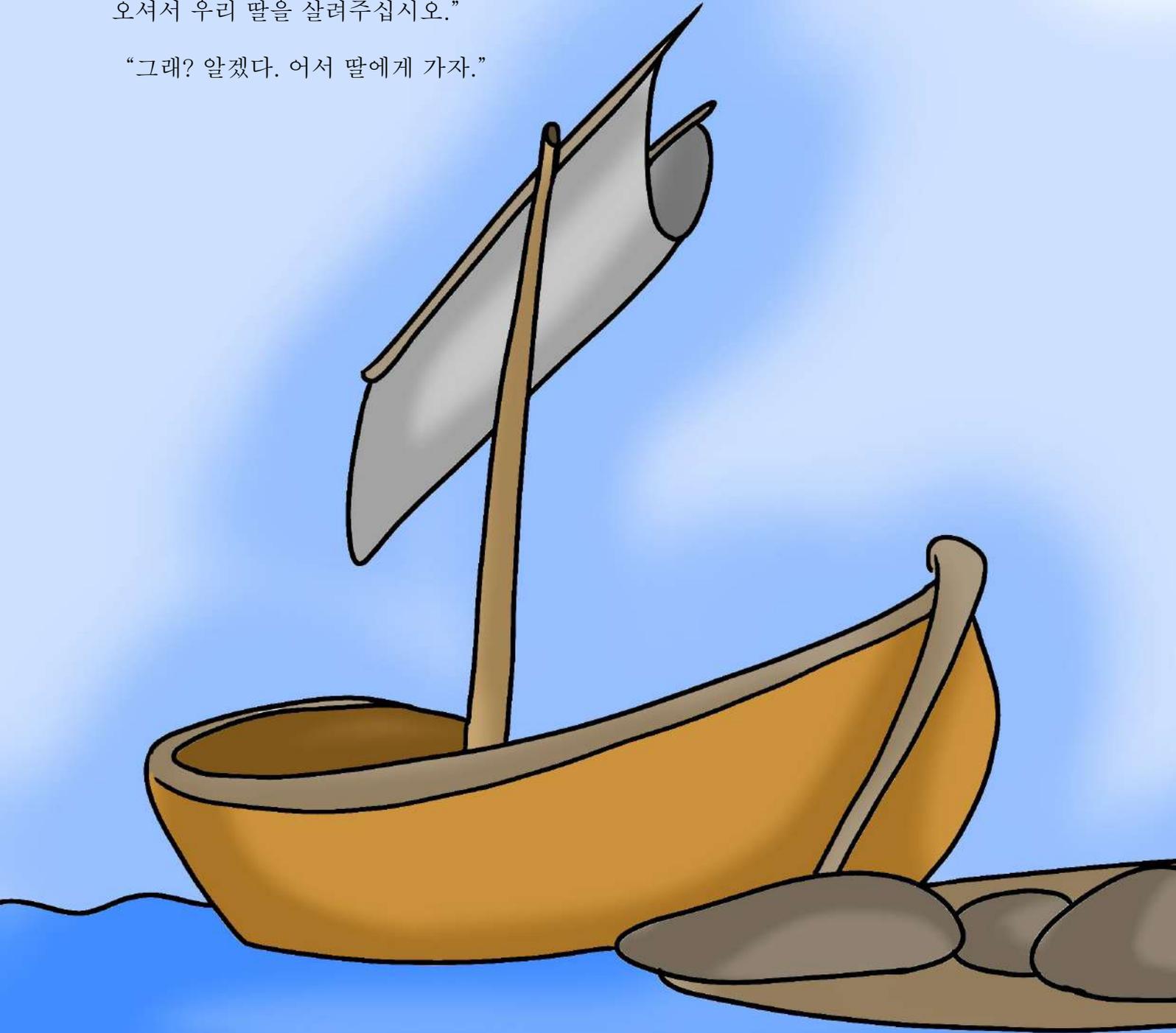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 ……흑……흑.”

“무슨 일 때문에 그리 슬피 우느냐? 어서 말해 보거라.”

“주님! 제게 열두 살 된 어린 딸이 있는데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어서 딸에게 가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발걸음을 재촉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한참을 걸어가던 중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뭐라구요? 내 딸이……. 예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야이로를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 나를 따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웅성거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울며 몹시 통곡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 어린 것이. 찢찢…….”

“기어이 죽고 말았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리 울고불고 소란이냐?  
어린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저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아이고~ 아가야, ……우리 아가야. 아이고~ 주님! 이제 사랑하는 내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흑흑”

“야이로야, 그만 슬퍼하여라. 너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자고 있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소녀의 부모와 함께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에요.

그러자 소녀가 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녔어요. 이것을 지켜 본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정말 제 딸이 살아났어요. 금방 잠에서 깬 아이 같아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소녀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와! 음식 먹는 걸 보니 귀신이 아니네. 소녀가 정말 살아난 거야.  
기적이 내 눈 앞에서 일어났어!”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려낸 소녀의 이야기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굽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41)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에게

나는 회당장의 딸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죽음에서 살려주었어.

그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희들을 살려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다.

사랑해, 나의 자녀들!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해주셔서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족 모두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가야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요즘 너~~무 더워요. 111년 만에 찾아온 더위래요. 밖에 나가면 뜨거운 땅바닥이 나를 잡아끄는 것 같아요. 해님이 나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 머리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백만 배는 더 뜨거운 지옥에 절대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래요. 우리 가족에게도 얘기해야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경**  
**이야기**